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22 관경16관변상도



▶ 한줄 요약
불교의 이상향 극락은 온갖 보배와 황금으로 치장됐다. 이는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관무량수경〉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는 이를 도상화한 것이다.

휘황찬란 극락은 어디 있을까

불교에서는 불사음 · 불음주 등의 금욕적 계율을 기본으로 하고, 제상비상(諸相非相)의 공(空) 사상을 말한다. 하지만, 불교의 이상향 '극락'의 표현을 보면 이렇다. "금 · 은 · 유리 · 파려 등의 칠보 보배로 만들어진 나라, 연못 바닥 가득한 금모래,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온갖 보배로 치장된 곳이자 화려함의 극치를 만난다. 〈아미타경〉에는 그나마 간략하게 서술되었고, 보다 세밀하고도 방대한 극락 묘사는 〈관무량수경〉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안팎이 투명한 유리로 된 땅을 상상하십시오. 그 땅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알알이 보석에서는 천 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줄기 광명마다 8만 4천 갈래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그 모든 빛이 유리로 된 대지에 비치면, 마치 억 개의 태양처럼 빛나 눈이 부시어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극락의 땅'을 관(觀)하다〉 중

백억 개 해와 달, 동시에 뜬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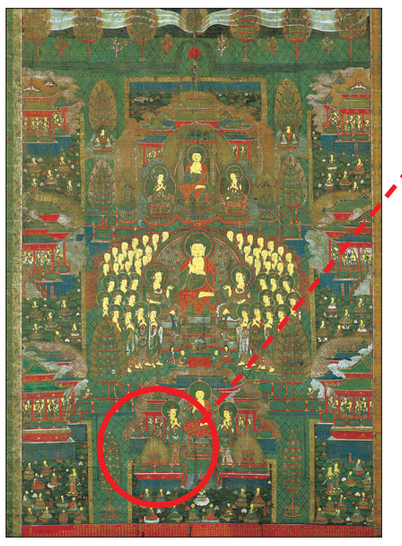
이처럼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불가사의한 단위와 개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늘 동자들은 오백 억의 여의주로 몸을 장식했는데, 그 구슬 빛은 백 유순이나 비쳐, 마치 백억 개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극락의 나무'를 관(觀)하다〉 중

읽다가 보면 이성과 생각을 버리고,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의 알량한 머리로 가늠하려 들면, 대승 경전 읽기는 실패다. 읽는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저 마음을 열고 따라가다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얼핏 운 좋게 그 세상을 체험하기도 한다. 30년 전 극락세계를 주제로 처음 대학 졸업논문을 쓸 때, 필자가 들었던 의문은 이것이다. "불교에서는 금욕과 공사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은보배 사치와 물질적 극치는 무엇인가?"

자신의 눈높이에 따라 세상이 보이고 불교가 보이는 법이겠다. 이미 스스로 갖추고 있는 눈높이, 자신의 깜냥을 불교 용어로 '근기(根機)'라고 한다. 당시 필자의 눈높이는 그러했기에, 극락세상을 서술한 아미타3부경의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문을 품었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어린 깜냥으로는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던 용어가 있었다.

바로 '공덕과 장엄'이다. 온갖 화려한 내용 묘사에 압도되어 보이지 않았던 단어, 공덕과 장엄! 하지만 지금 읽어보면 휘황찬란한 극락 풍경의 서술 이전, 이 두 단어가 들어간 같은 문장이 단락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키워드는 금은보석이 아니라, '공덕과 장엄'이었다.



그림①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 전도. 〈관무량수경〉에 묘사된 극락의 모습을 도상화했다.

그림②.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에 묘사된 극락의 연화대와 누각, 대세지보살 등의 모습. 모두 비유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온갖 보배로 치장된 극락세계
〈관무량수경〉에서 묘사 '절정'
불화 〈관경변상도〉 도상 담아
공덕으로 장엄된 극락 표현해



그림②

〈무량수경〉의 간략 버전으로 알려진 〈아미타경〉은 워낙 짧기에 공덕과 장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아미타 신앙의 근본 경전인 〈무량수경〉은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으로도 일컬어지는데, 간단히 '대경(大經)'이라고 불리고, 〈아미타경〉은 '소경(小經)'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법당에 항상 비치된, 불자들에게 익숙한 경전은 소경에 해당하는 〈아미타경〉이다. 여기에는 극락세계에 대한 단출한 소개와 거기로 가는 방법만이 간단명료히 언급되었다. 대경인 〈무량수경〉의 내용에 비로소 어떤 공덕과 어떤 장엄이 이루어졌는지, 그 '인과(因果)' 관계가 설명됐다.

여기서 '공덕'은 원인이고, '장엄'은 결과이다. 장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알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청정(淸淨) 공덕 또는 선업(善業) 공덕이다. 불교에서는 철저한 인과법을 말한다. 지옥계이건 속계(중생의 세계)이건 법계(깨달음 · 부처보살 세계)이건, 무조건 인과법이다.

선업 결과로서의 극락 장엄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다. 악업의 결과가 삼악도 왕생이고, 불선업(不善業)의 결과가 육도윤회이고, 선업의 결과가 극락왕생이다. 즉, 내가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이 세상은 내 업에 따른 결과라는 것. 번뇌의 결과가 고통이듯, 수행의 결과가 즐거움이다. 물론,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법열(法悅)을 말한다. 법열의 '지극한 즐거움'을 한문 용어로 표현하면 '극락(極樂, 지극할 '극' 자에 즐거울 '락' 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업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이라는 요지인데,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공덕을 행했기에 이 같은 결과(극락)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그 답변이 무량수경 '제3장 극락정토가 만들어진 원인'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법장비구의 48서원'이 그 원인으로 등장한다.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무량수경〉에는 극락이라는 불국토를 이룬 공덕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법장비구의 결심과 그것의 이행'이 그것이다. 자그마치 "5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이루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법장비구는 온 정성을 다 기울였느니라." 삼매 체험을 일순간 하기도 힘든데, 무려 5겁의 삼매 기간이라니! 이러한 선업 공덕의 결과로서의 장엄 세계인 '극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미타불(또는 무량수불, 무량광불) 관련 불화이다. 그저 극락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극락세상을 추체험할 수 있다. 무량수경보다 더더욱 우리 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설법이 〈관무량수경〉의 내용이다.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본 연재에 소개하는 〈관경16관변상도〉이다. 〈관무량수경〉을 약칭해서 〈관경〉이라고 한다. 그림 제목인 〈관경16관변상도〉란, '관경에 설해진 16단계의 (극락을 관찰하는) 관법을 쉽게 풀어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극락도의 전형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의 기본 구도는 본 그림과 같은 형식이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아미타3존과 왕생연못'을 위주로 〈극락9품도〉가 정착되게 된다. 전도(그림①)의 윗부분에는 해(日想觀), 물(水想觀), 땅(地想觀), 나무(寶樹觀), 연못(寶池觀) 등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8개의 연못이 그림의 외곽으로 둘러있고, 화면 중앙으로는 아미타3존(아미타불 진신관, 관세음관, 대세지관)이 3회(상 · 중 · 하) 묘사되었다.

'삿띠'하는 자리, 극락의 시작

극락의 땅이 전체의 배경으로 깔렸고, 보배나무와 연화대는 연못 구획의 경계선 역할로 도처에 그려졌다. 극락의 누각은 각 연못과 아미타삼존(상 · 하)을 배경으로 총 8곳에 표현되었다. 연화대는 4곳에 발견되는데, 상단의 연화대(2구)는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과 견숙가보와 범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었다. 연화대 위에는 네 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백천만 억의 수미산 같다('화좌관華座觀' 중)"는 경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듯, 연화대 속에 우주가 들었다.

하단의 연화대(2구)는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수행자를 앉히기 위해, 그림 아래쪽 아미타3존 옆에 마련되었다.(그림②) 무진장의 보주로 만들어진 연화대에서는 보주마다 8만4천의 색다른 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극락왕생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불자들의 영원한 염원이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의 도입부에서부터 "그대는 범부라서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못미쳐서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극락을 갈구하는 위데휘 부인에게 부처님은 '범부'라 하셨다. 범부란 '교만하고 게을러서 아견(我見)만으로 전부를 헤아리는 사람'을 말한다. 아는 것이 적고 오욕에 빠져있으면서 자신의 식견만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중생들이 이런 상태다.

"하지만 다른 방편이 있어 너에게 이를 보게 하리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아미타불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오롯하게 모아(繫念) 청정한 업(淨業)으로 만들어진 저 세계를 명료히 관하라(諦觀). 내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하겠다."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 '비유'를 만나게 된다. '비유의 방편'은 〈법화경〉을 비롯해, 대표적 대승경전을 가로지르는 핵심이다. 범부라서 실제로 체험할 수 없으니, 비유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경전 속의 온갖 보배는 범부를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의 수단일 뿐이다. 옮길려고 해야 옮길 수 없는, 담을려고 해야 담을 수 없는 청정한 세상의 깊고도 넓은 미세하고도 광활한 장엄을 어찌 표현하겠는가.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